

파리지앵도 반한 전남산 소비재

프랑스 '파리 케이-소비재 프리미엄 전시회' 9개사 참여 천연염색·화장품·의류 등 높은 관심...27만달러 수출 계약

전남도가 지역 소비재기업과 함께 프랑스 '2024 파리 케이-소비재(K-Product) 프리미엄 전시회(KOREA EXPO 2024)'에 참가해 10만 달러 현장 계약과 17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맞아 프랑스가 글로벌 화합의 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전시회는 지난 26일까지 3일간 열려 케이-뷰티, 케이-푸드, 케이-라이프 등 글로벌 케이-브랜드가 총집합해 유럽의 중심 파리에서 한류 경쟁력을 확인했다. 23개국에서 대형 유통사를 포함한 115개사가 참가해 제품을 홍보했고, 1만8400여명 관람객이 방문해 한류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전남 기업 9개사와 함께 참가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유럽 시장에 소개하며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의류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다. (사)한국천연염색 측은 독창적 디자인의 천연염색 의류와 침구를 선보여 유럽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10만 달러 계약과 2천 달러 수출협약을 성사시켰다.

(주)스트뉴인터내셔널이 출품한 '이코 프리덤 랩(AEGO Freedom Lab)'은 재활용이 필요한 의류를 해체하고 다시 접목해 만든 업사이클 청바지를 소량 생산해 희소성과 특별함을 더한 브랜드

다. 유럽 바이어와 7만 달러 수출계약 해 전남의 류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

(주)인코돈바이오코스메틱이 전시한 트러블 개선 마스크팩은 독창적 성분, 효과적 기능으로 유럽 소비자들의 취향에 잘 맞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만 달러 수출협약을 했다.

현지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 기회도 모색했다.

(유)트리트는 아로마스킨과 헤어제품, 씨엔씨 코스메틱은 콜라겐과 달팽이 등 기초화장품, 에스 에이치엔코는 마이크로 니들 미용패치, (주)이노플렉스는 해조류 추출 성분 기초화장품, (주)코사이언스는 반려동물 피부염 개선 크림, (주)디엑스엠은 듀얼 성분 믹싱 팁 기술 모바일 염색제를 출품해 총 253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트벙커'로 일상 속 예술 꽃피운다

광주시, 공공·민간 유희공간 22곳 선정...음악 등 프로그램 지원

광주 곳곳에 숨겨져 있던 공간들이 시민의 일상 속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아트벙커 공모를 진행해 공공·민간의 유희공간 22개소(동구 3, 서구 6, 남구 3, 북구 5, 광산구 5곳)를 선정했다.

이 중 7곳은 우수 아트벙커로 선정돼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며, 15곳은 새로 뽑혔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의 유희공간을 거점으로 음악·미술·쇼츠·공예 등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트벙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율성, 지속성, 개방성, 확장성을 원칙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8일 '2024년 생활문화 아트벙커 스

타트 워크숍'을 개최하고, 아트벙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선정된 22개소 아트벙커 운영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2024년 운영방향 설명, 아트벙커별 사업소개, 2023년 우수사례 발표, 분야별 네트워크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1년차 아트벙커의 성공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과 배움의 시간을 통한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아트벙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자치구(동구 문화관광과 608-2402, 서구 문화예술과 360-7194, 남구 문화관광과 607-2314, 북구 문화예술과 410-6620, 광산구 문화예술과 960-84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특별자치도,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해야"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

전남도가 '특별자치도' 도전 의향을 밝힌 이후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특별자치도는 지방의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대해 '무늬만 지방자치'를 타개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열린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입장을 밝히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의 경우 에너지·관광·농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김 지사는 "권한이 중앙에 너무 집중해있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역시 권한이 한정적"이라며 "전남특별자치도는 전남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무안군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전남행정동우회 도정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특별법을 통해 ▲무안공항 국제항공물류터미널 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MW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외자유치를 위한 카지노업

허가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7가지 특례 조항을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으로 확보할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특례 조항을 담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광장 도화지로 변신

비엔날레 100일 앞...시, 광장 캔버스 100명 참여 그림 대회

광주시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D-100일(오는 30일)을 기념해 100개의 광장 캔버스에 100명이 참여하는 그림 대회를 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9일 오후 4시부터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마당 스케치북 그림 대회'를 개최한다.

광장 바닥을 가로, 세로 1m 크기 100개의 캔버스로 나눠 이번 비엔날레 주제인 '판소리·모두의 울림'이 담고 있는 기후 위기, 환경문제 등을 색분필로 표현한다.

대회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 접수로 선착순 100명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

그림을 심사하는 동안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응원 리본 이벤트'도 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판소리를 매개로 동시대 공간과 인류에 대해 탐색한다.

이상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개최된 이후 30년이 흘렀고, 문화중심 도시 광주는 이제 명실상부 '비엔날레 도시'로 불린다"면서 "올해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광주의 아·에·미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양궁대회 슬로건·마스코트 뽑아주세요"

광주시, 다음달 2일까지 선호도 조사...시민 의견 반영

광주시는 "내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상징물인 슬로건, 엠블럼, 마스코트 선호도 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슬로건 후보작은 '평화를 향해'(Shoot for peace), '평화의 울림'(Echo of the peace), '미래를 향해, 평화를 향해'(Shoot for future, Aim for peace) 등 3개다. 엠블럼은 모두 4개 안이 후보에 올랐다.

화합을 상징하는 두 개의 원과 평화를 향하는 화살을 담은 디자인, 광주시 상징색과 신장동 마한유적 활의 형태를 담은 디자인, 선수가 활을 쏘는 동작과 과녁을 형상화한 디자인, 여러 개의 화살이 하나로 모여지는 모습을 나타낸 디자인이다.

마스코트는 무등산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궁수 캐릭터, 빛고를 광주의 의미를 살린 빛몽치 캐릭터, 과녁과 광주의 시조이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양궁 과녁을 형상화한 캐릭터 등 4개 중 선정한다.

광주시는 이번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가치와 광주의 도시 정체성 및 브랜드 등이 담긴 상징물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배너, 네이버 설문 폼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5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민주역사 자원 발굴·활용 정책토론회

오늘 오후 2시 5·18교육관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광주 민주역사 자원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의 주역

과 현장 등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동학에서 촛불혁명까지' 총괄토론회에 이어 동학농민혁명, 3·1운동과 광주 3·15의거, 4·19혁명 등 민주역사 관련 심화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역사학자인 신주백 성공회

대학교 교수가 맡고, 주제 발제는 한규무 광주대학교 교수, 주제 토론은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과 광주 민주역사 정책자문 전담팀(TF) 위원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등 광주 민주역사 사건별 심화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민주역사 자원 발굴 및 정책 활용 계획 수립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란우산 쓰세요!

대한민국 사장님~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감리인 선임필 (제24-08호(2024.3.3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정보를 거쳐 제공된 바, <예규제보 제 14호> 노란우산은 예규제보제에 따라 예규제보제(가) 보호여부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받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자는 공적 관계로서, 중소기업중앙회 제120조에 따라 장래 지점에 필요한 제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금원을 포함한 준비금의 무조건적으로 전입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직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